W299 연합전《 LES PARISIENS 》| 보도자료

전시기간 : 2022 년 10 월 7 일 (금) – 10 월 29 일 (토)
전시장소 : 웅갤러리, 본화랑, 브루지에 히가이 갤러리 서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99 (3F ~ B1)
관람시간 : 화 - 토 10 - 18 시
문 의 : 웅갤러리 02-548-7371 | 본화랑 02-732-2366 | 브루지에 히가이 02-3417-0900
참여작가 : 김창열, 박인혁, 이 배, 이 유, 이응노, 장광범, 진효석, 한홍수, 홍일화
오프닝 리셉션 : 2022 년 10 월 7 일 (금) 오후 5 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99 번지에서 웅갤러리, 본화랑,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의 두번째 연합전 W299 프로젝트, « Les Parisiens (레 파리지앙) »이 2022 년 10 월 7 일 금요일부터 29 일까지 개최된다.

19 세기 후반부터 전세계 작가들이 모여들어, 예술가의 안방역할을 해왔던 프랑스 파리. 한국작가들은 1930 년대부터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 정착하면서, 각자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재불작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연대해왔다. 이번 전시 « Les Parisiens (레 파리지앙) »을 통해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작업활동을 펼쳐온 1930 년대 이후의 1 세대 (김창열, 이응노), 1980 년대 이후의 2 세대 (이배, 한홍수), 2000 년대 이 후의 3 세대 (박인혁, 이유, 장광범, 진효석, 홍일화), 총 아홉명의 재불작가의 작업을 하나의 전시 장 안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웅갤러리, 국내 근현대 미술을 선보이는 본화랑, 그리고 파리의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가 함께 개최하는 W299 의 두번째 연합전이다. 전시는 자하문로 299 건물의 지하 1 층 (본화랑) 부터 1 층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 2-3 층 (웅갤러리) 까지 전관에서 진행된다.

PREFACE

마엘 벨렉, 파리 시립 세르누치 미술관 중국&한국관 학예 실장

전쟁 이후 한국 근현대 미술이 프랑스 미술계의 영향을 받았고, 서양미술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한 한 세대의 한국 작가들이 파리라는 도시에 매료된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1950 년대에서 1960 년대 초까지, 이성자, 김환기, 남 관, 방혜자, 한 묵 등의 작가들은 프랑스에 머무르거나 정착했다. 당시 파리는 전세계 예술의 수도 중 하나로 각광 받고 있었고, 이들 중 독립적인 자세를 취했던 이도 있지만, 대다수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에꼴 드 파리(파리파)에 종속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한국 예술계 사이의 이러한 상대적인 융합의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프랑스의 에꼴 드 파리가 겪었던 고뇌의 시간은 선망의 대상이 될 법한 예술학파의 종결로 이어졌으며, 한국의

독재정권의 부상으로 해외여행의 기회는 대폭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 예술계간의 교류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변한다. 이어온 시기의 교류는 한국 예술계에 대한 진정한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드물거나 일회성인 개인적 탐방의 기록들이다. 사실상 1980 년대가 되어서야 한국 작가들이 대대적으로 파리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의 진보에 따라 프랑스를 찾아오는 한국 작가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안정된 흐름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1950 년대 이후로 프랑스를 거쳐간 한국 작가들은 수백명에 이른다.

브루지에-히가이 갤러리, 웅갤러리 그리고 본화랑이 주관한 이번 전시는 1950-2000 년대 사이에 프랑스에 정착했던 아홉명의 선별된 작가의 작업을 통해 이 기나긴 교류의 역사를 떠올려보게 한다. 이응노와 김창열과 같이 20 세기 회화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대가들과 더불어 이배, 한홍수와 같이 검증된 작가들, 그리고 작가로서의 이력을 모국과 프랑스에서 연이어 구축해 나가고 있는 장광범, 진효석, 이유, 박인혁, 홍일화와 같은 젊은층 작가들의 작업이 한 전시장 안에서 어우러진다. 작품의 구성은 필연적으로 임의적이지만, 작업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기법과 화법은, 더이상 지배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프랑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학계와 화랑, 문화예술기관과 미술관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아직까지는 예술가들에게 유익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개인적인 표현과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나마 한국의 예술계에 풍요로움을 더하는 한편, 파리와 서울 간의 여정들의 기나긴 역사를 지속해나갈 실마리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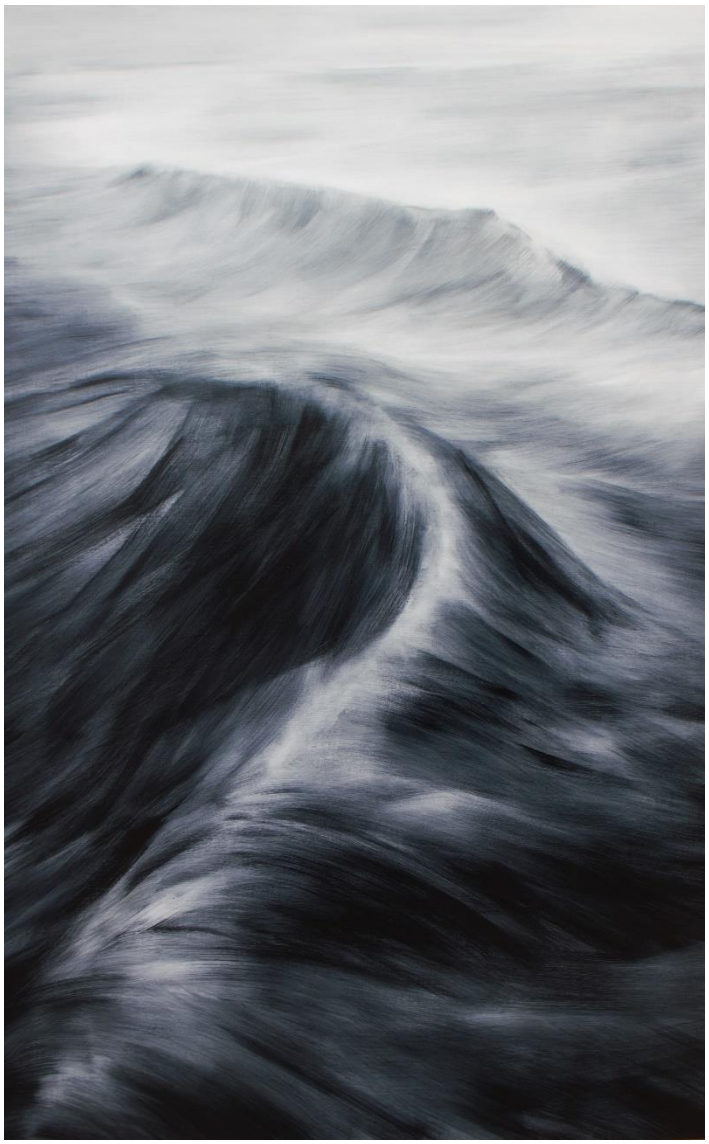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는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갤러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편집이 불가합니다.

JANG Gwangbum

Montagne

Acrylic on canvas, sanding, 100,5 x 80,5 cm, 2022

GALLERY WOONG BON GALLERY GALERIE BRUGIER RIGAIL



HAN Hongsu

결 221001 Gyeol (Textures of Time)

Oil on canvas, 193,9 x 130,3 c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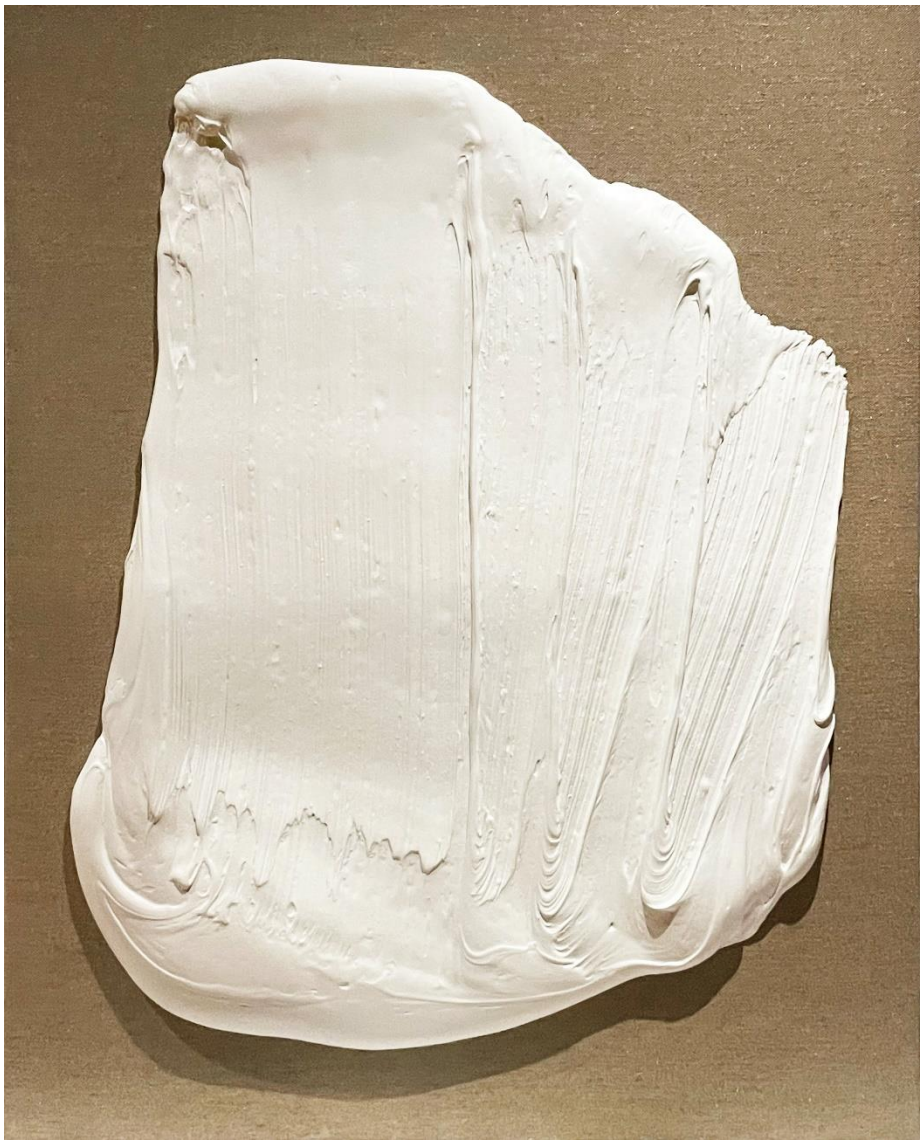
GALLERY WOONG BON GALLERY GALERIE BRUGIER RIGAIL

PARK Inhyuk

White Landscape

Mixed media on canvas, 101 x 81 x 6 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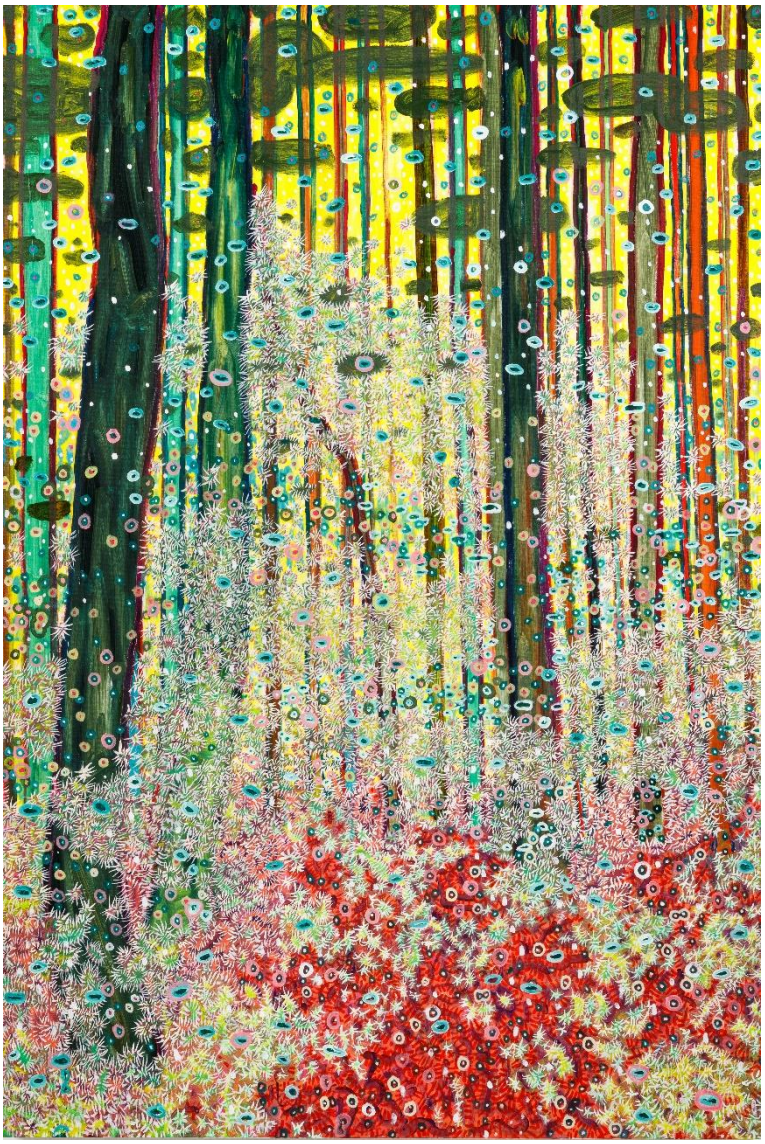
GALLERY WOONG BON GALLERY GALERIE BRUGIER RIGAIL



LEE Eu

Peinture en question (No_202208A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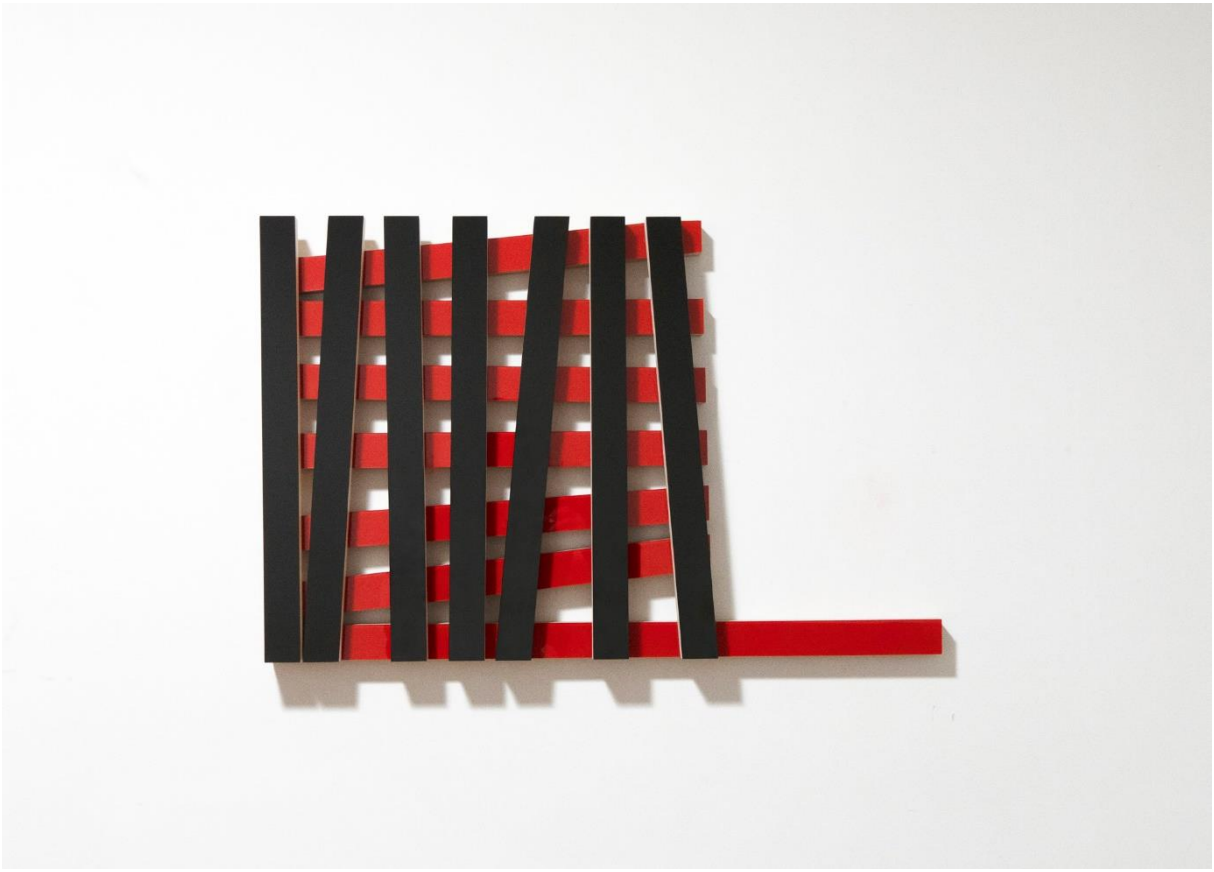
Mixed media on canvas, 100 x 80 cm, 2022



HONG Ilhwa

Epine.P.E 1012

Oil on canvas, 130,3 x 193,9 cm, 2021



Jin Hyo Seok

Composition 0521

Acrylic and polycarbonate on plywood

76.5 x 50 x 6.5 cm, 2021